

맞춤형 잇몸관리로 건강치아 100세 만든다

**나두 모아치과의원
'민지현 · 김경희 부부 의사'**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등 음식문화도 바뀌고 있다. 하루 세끼를 먹는 식사도 치아가 튼튼해야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치아가 망가져 전문병원을 찾게 된다. 요즘 구강치료를 위해 노인들은 물론 젊은 사람도 자주 찾는 치과의원을 찾았다.



2009년 개원 25년간 진료...환자 보호 VIP실 운영 다문화가족 · 외국인 환자 무료진료 봉사활동 전개 청소 별도 운영, 직원 복지 선도...친절 미소 인사

호남의 중심 목사골 나주시 중앙로 사거리에 위치한 모아치과의원, 민지현 · 김경희 부부 전문의사가 운영하는 구강전문의원 모아치과는 첫째 통증완화, 둘째 예방치료, 셋째 철저한 소독 등 3P시스템으로 '환한 미소, 건강한 치아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원장 김경희 박사는 전남대 치과대학을 졸업 치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외래 강사, 나주대학 치위생과 임상외래 교수로 활동했으며, 대한소아과학회 회원으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편 민지현 박사 또한 전남대 치과대학을 졸업후 치의학박사(교정학)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외래 교수와 대한치과이식학회 회원(임플란트)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4년 개원, 25년간 진료

모아치과의원은 1994년 나주에 개원하여 25년 동안 지역사회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적 봉사를 실천하고, 의료검사 장비 현대화를 위해 수술에 필요한 조음파피에조 발치 기술기 도입과 물방울 레이저치료기, 저선량방사선 안심CT를 도입했다.

◆환자 보호 위한 VIP실 운영

모아치과의원은 환자들은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VIP 방을 운영하여 주변 대기실이나 개방된 치료 장소가 아닌 곳에 검사 결과 등을 환자와 가족들에 상담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를 검

사와 함께 진단하여 확실한 결과로 치료를 시작하며 수술실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의견까지 소통하면서 치료에 반영하는 환자중심 치료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외국인 환자 무료진료

모아치과의원은 2009년 11월 11일 나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환자들에게 일반치과 진료의 경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보철·임플란트 등의 시술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 미개발국에 매년 1-2차례 의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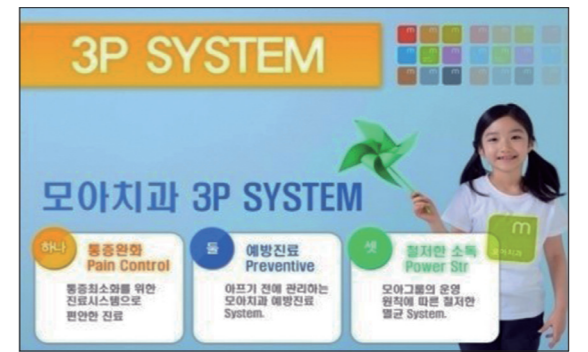
◆직원 복지 선도

모아치과는 전문의사 2명과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등 8명이 주5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도우미까지 별도운영으로 최근문제화 되고 있는 병원들의 의사나 간호보조사들에 과로 등 근무조건 문제 해소와 직원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친절한 분위기 조성

모아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입구에 들어서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는 친절 미소 인사가 마치 가족 같은 기분이 든다.

대기실에서 만난 AOO씨(왕곡면)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의원을 찾고 있는데 부원장님과 치과위생사들의 친절에 감동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예약상담전화 : 061-332-2828) /나주-임재상 대표기자 /정리-이민행 대표기자



모아치과의원은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예약상담전화

061-332-2828



환한 미소 주인공 '서태영 치과위생사' 국군 간호장교 꿈...체력 미달로 접어

아름다운 미소를 디자인하는 모아치과의원에 치아사랑으로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환자와 늘 함께하는 서태영 치과 위생사(25세)를 환한 미소의 주인공으로 만나본다.

서태영씨는 나주 공산면 출신으로 나주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대학에

서 치위생과를 전공한 후 나주 모아치과의원에서 4년째 치과 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태영 치과위생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면허시험에 자격증을 취득, 고교시절부터 꿈인 간호장교가 되어 국가와 남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군 간호장교시험을 준비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체력평가에서 미달되어 그 꿈을 접기도 하였다.

서 위생사는 나고 자란 고향에서 원장 선생님과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그에 꼼꼼한 성격과 섬세한 손놀림으로 의료기의 원활한 작동을 점검하고 환자들에게 치료 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특유의 환한 미소로 환자와 대화를 나누며 환자를 내 가족같이 섬기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치아를 뽑거나 수술을 할 때는 환자에게 손을 잡아주며 '아빠, 엄마 힘내세요' '조금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계속되는 멘트로 순간에 치료가 끝나게 된다.

또한 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주의사항 또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서태영 치과위생사는 오늘도 피곤함을 잊은 채 환자들을 위해 환한 미소를 실천하고 있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